

광주 덮친 'GH형 바이러스' 전파속도 빠르고 치료도 어렵다

의료진들 "흡착력 강하고 대구확진자보다 치료 힘들어"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제 '렘데시비르' 효과도 제한적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광주를 덮친 코로나19 변종 'GH' 바이러스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감염 이후 치료도 기존보다 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대를 모았던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박항광주시 복지건강국장장은 20일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인 'GH 그룹'의 특성이 빠른 전파속도와 함께 치료도 기존보다 더 힘들다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의견"이라며 "GH그룹 바이러스는 S(그룹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인데 세포에서 증식이 더 잘되고, 인체세포와 결합도 잘해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GH 그룹)를 치료 중인 광주의료진 사이에선 기존에 치료했던 대구 확진자(S 또는 V 그룹 바이러스 감염자)들보다 치료가 훨씬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올 가을 유행 예정인 독감 등과 혼재할 경우 큰 어

려움이 예상돼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미국 연구진도 최근 변종인 GH 그룹 바이러스의 전파속도가 기존보다 최고 6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내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선 4월초 이전까지만 해도 'S, V 그룹'이 주로 발견됐으나, 최근엔 광주를 중심으로 'GH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S, V, L, G, GH, GR, 기타 등 총 7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초 지난 4월 초 경북 예천 집단발병과 5월 초 서울 이태원 클럽 발생 사례 이후부터 대전 방문판매업소와 광주 광복사 관련(금양오피스텔) 사례를 포함해 최근 발생 사례는 GH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에선 6월 27일 이후 확진자 15명이

중증 등 건강이상을 보여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처방과 함께 고용량 산소 투입 치료 등을 받았다. 이 중 3명 이상이 아예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70대 1명은 지난 19일 오후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숨진 70대는 렘데시비르 처방 치료까지 받았지만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는 게 방역당국의 말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증상발현 10일 이내 확진자 가운데 호흡기 증상이 있고, 폐렴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립의료원측에 처방전을 보내 '렘데시비르' 처방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국립의료원에서 처방이 확정되면 확진자 가족이 약을 직접 받아와야 하지만,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 공무원이 직접 받아오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렘데시비르 투약 후 확진환자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해서 해당 약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어떤 치료법 때문에 상태가 좋아졌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일 광주 북구보건소 주차장에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수송 시 사용할 음압구급차를 방역소독하고 있다. 음압구급차는 차량 내부 압력을 낮춰 바이러스가 차량외부로 누출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구급차로 광주지역에는 북구를 비롯해 남구, 동구 보건소와 광주시 소방본부에 각 1대씩 보유 중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11명 확진 부른 '송파 60번'에 2억원대 구상권 검토

초등생 등 진단 검사 802건·자가 격리 149명 발생 비용

광주시가 코로나19 11명 확진사태를 부른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에 대해 2억원대의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송파 60번 확진자의 친지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는 광주에서만 모두 11명이다. 지난 10-12일 광주를 방문했던 송파 60번 확진자는 15일 확진 판정을 받고도 3일동안 광주방문 사실을 숨겼다. 결국 친인척 17명(양성 9명)을 비롯한 계수초교 학생과 교직원 등 402명, 친인척의 직장 동료 등 진단 검사 802건이 이뤄졌고, 밀접 접촉자 149명은 2주일간

모든 생활을 중단하고,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확진자는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하면서 60여곳을 다니기도 했으며 다른 확진자의 직장 동료, 직업학교 수강생 등도 확진 검사를 받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자들이 늘면서 검사비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는 직접 비용만 최소 2억2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802명에 대한 상·하 기도 검사 비용만 건당 14만원, 모두 1억1200여만원이다. 또 1인 가구 기준 45만4000원씩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700여만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비용 2000여만원, 확진자 입원 치료비 2200만원 등이다.

시와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행정력 소모, 동선에 공개된 업소의 영업 손실, 자가격리로 생긴 노동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은 뺀 금액으로, 광주시는 추후 모든 피해 비용을 환산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미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며, 수사가 이뤄진 뒤 송파 60번 확진자의 행위와 비용과의 연관성이 입증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8월 17일 임시공휴일 되면 생산유발액 4조2000억"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3만6000명 취업 유발

올해 토요일에 든 광복절 대신 월요일인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이 4조2000억원에 이르고 취업 유발 인원도 3만6000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경제적 파급 영향을 이렇게 예상했다.

연구원은 우선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8월 17일에 쉬는 가장 아래 경제 파급 효과를 추산했다.

2011년 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소비지출이 수준에 맞춰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을 8만3690원으로 환산하고, 소비지출의 구성비는 숙박(23.9%)·교통(28.2%)·식비(34.1%)·오락문화(13.8%)로 가정했다. 또 2018년 산업연관표 연장표의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현재에도 유지된다고 전제했다.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임시공휴일 하루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1000억원이고, 이는 파급 경로를 통

해 경제 전체에 4조2000억원 규모로 생산을 유발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 부가 가치 유발액은 1조6300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6000명으로 계산됐다.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상 초유의 경기 위기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중요한 조치"라며 "임시공휴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속히 시행을 결정해 가계, 기업 등 민간 주체들이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 확진자 10명 중 7명 50대 이상...전국은 41.6%

광주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2차 유행이 시작된 6월 27일 이후 확진자 154명 가운데 50대 32명, 60대 43명, 70대 18명, 80대 8명, 90대 5명으로 50대 이상이 106명(68.8%)을 차지했다. 10대 미만 5명, 10대 6명, 20대 6명, 30대 11명, 40대 20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확진자 비중은 적었다.

전국적으로는 1월 20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누적 확진자 1만3672명 중 50대 이상이 5694명으로 41.6%였다. 광주에서는 방문 판매 활동에서 비롯한 집단 감염이 교회, 사찰, 요양원 등 고령층 이용이 많은 시설에 집중적으로 퍼진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명률은 급증한다. 지난 17일 현재 전국 사망자 293명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코로나19 치명률은

2.14%였다. 60대는 2.3%로 평균과 비슷했으나 70대 9.5%, 80대 25.2%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명률은 급격히 올라갔다.

광주에서는 90대와 70대에서 1명씩 사망자가 나왔다. 이날 현재 광주의 중증 환자는 70대 3명, 40대 1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치명률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물론 나이, 노화와의 연관이 있는 것 같다"며 "모든 환자가 마찬가지로 특이 중증 환자들의 집중적인 치료에 의뢰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통합당 정강정책 초안에 5·18민주화운동 담았다

미래통합당 새 정강정책 초안에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돼 최종 정강정책으로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특위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새 정강정책 초안을 보고했다. 초안에는 5·18을 포함해 정부 수립 이후 박정희·전두환 정부가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국민통합'을 약속하는 부분에서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뿐 아니라 박정희 정부의 유신에 반대한 부마항쟁,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한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까지 열거했다. 앞서 지난 2월 제정된 정강정책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대목이 없다.

통합당은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

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을 이어간다"는 점도 정강정책에 담았다.

통합당은 정강정책의 첫 부분을 '미래통합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온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킨다'에서 '미래통합당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로 바꾸기로 했다. 새 정강정책 초안으로 의원총회에 넘겨져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주)제이엠신용정보 직통전화 062)416-6226
010-6833-1600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0-1281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708-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20.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광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가.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708-1번지 일원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모	폭원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계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광산구 산정동 375-3	광산구 산정동 685	일반 도로	-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A	·도로 신설 B=8m, L=305m	·광산동의 전수교육관 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신설

2. 공람기간 및 장소
·기 간: 2020. 7. 20. ~ 2020. 8. 3. (15일간)
·장 소: 광산구청 건설과(5층), 하남동 행정복지센터

3. 의견제출 방법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청 건설과(062-960-8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행안내

7월22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22일(수) 전북 무주 남덕유 토목동계곡 산행, 백운 로타리타이어뱅크와 07:00, 교직원 공제회관 07:10, 예술회관후문 07:2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3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7월25일(토)
▲광주호산회 7월25일(토) 함양 영취산 부전계곡,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7월26일(일)
▲광주자연보전탐사회 7월26일(일) 산청 웅석봉 탐프기능선 - 백운계곡, 영주체육관 07:00, 무등경기장 07:20, 동광주출판사 07:40 *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탐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7월29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29일(수) 경남 밀양 구만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8월1일(토)
▲광주금당산악회 8월1일(토) 지리산 서산대사길 대성계곡 트레킹, 봉선동롯데마트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앞 07:5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